

자연·첨단 조화... 지역민과 동행하는 문화공간

전남대 디지털 도서관 '정보마루' 개관

앞으로는 푸른 수목의 동산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붉은 벽돌의 인문대가 보인다. 주변의 풍경 속에 맞춤형 듯 들어앉은 건물은 투명한 통유리와 유연한 곡선이 맞물려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발한다. 봄철, 비록 코로나로 많은 학생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캠퍼스는 그렇게 싱그러움과 낭만이 가득하다.

최근 전남대 캠퍼스에 디지털 도서관 '정보마루'가 문을 열었다. 옛 독일문화원 광주아카데미 자리에 들어선 도서관은 주변의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 현재 독일문화원 광주아카데미는 언어교육원 건물 내로 이전한 상태다. '정보마루' 뒤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인 인문대(1호관)이 자리하고 있어 모던과 첨단, 근대가 버성기듯 어우러진 느낌이다.

무엇보다 개방성과 투명성, 접근성이 눈에 띈다. 캠퍼스 안에 있지만 멀티미디어와 복합문화가 적절히 융합되는 공간을 지향한다. 여기에 문화와 역사, 자연과 첨단, 정보와 예술이 만난다. 학술자원과 문화가 만나는 융복합 하이브리드 도서관은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동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정보마루는 대출이 가능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마루 출입 및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광주-전남이 읽고 푼다' 독서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대출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회원을 모집중이다.

지난 2018년 5월 착공해 올해 3월 완공된 정보마루는 연면적 1만498㎡ 5층으로 구성돼 있다. 203억 원의 건축비와 내부 공간구성 및 관리운영시스템에 28억 원

학술·IT 융복합 하이브리드 도서관

1210좌석, 문학·예체능 8만여권 소장 '한 책 읽기' 지역 독서클럽회원 모집

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공간구성과 운영시스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계의 디지털도서관 후원금 및 재정지원사업비로 추진됐다.

내부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공간은 이용자의 편리를 고려했다. 1층과 2층은 각각 동과 서로 분리돼 있으며 3층과 4층은 하나로 통일돼 있다. 이곳에는 모두 1210석의 좌석이 준비돼 있으며 8만 여권의 문학, 예·체능 자료가 소장돼 있다.

1층은 '지성의 만남, 사용자 중심의 개방된 공유 공간'으로 불린다. 탁 트인 전망과 넓은 열람 및 휴게 공간은 고급스러운 카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컨퍼런스홀, 스터디라운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연구와 토론이 가능하다. 그룹스터디룸, 프레젠테이션룸, 학술정보교육실, 장애인학습지원실 등 소규모 스터디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된 점도 이채롭다.

2층에는 열람실인 다락방과 클라우드룸이 마련돼 있다. 층고가 낮아 포근하고 아늑해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볼 수 있다. 특히 빛마당으로 불리는 계단형 열람실은 안으로 스며드는 채광 효과 때문에 자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밖에 학술 검색이 가능한 학술정보검색, 광주은행 멀티미디어존, 미디어편집실, 영상제작실도 갖추고 있어 최신의 기기를 동원해 자신만의 정보 검색과 다양한 미디어 편집이 가능하다.

여행, 힐링 등을 주제로 한 책을 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파크도 눈길을 끈다. 3층은 전대애서 52선, 전남대 베스트 등 컬렉션 공간과 전시공간, 열람적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BB Park에서는 '도서관 68년'과 같은 사진전과 함께 여행도서, 베스트 동서 컬렉션 코너를 마련해 상시 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정보마루 내·외부공간을 활용해 미술전, 사진전과 같은 다양한 전시회와 음악 콘서트 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4층은 문학자료를 위한 서가공간과 아울러 20살의 개인캐럴이 준비돼 있다. 대출과 반납을 위한 대출반납실은 3층에 위치하며 3층과 4층 각각 셀프대출을 위한 자동대출기가 있으며, 자동반납기는 남문 1층 외부에 마련돼 있다.

이밖에 도서관은 '한 책 읽기' 독서클럽 토론 때에는 본관 세미나실과 정보마루 그룹 스터디룸을 예약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독서클럽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올해의 한책 관련 도서 등을 전시하는 '테마도서 전시회', 올해의 한책 및 동반도서를 개인소장 도서와 교환하는 '한책 도서교환전', 올해의 한책 작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초청 토크콘서트' 등을 정보마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장우권 도서관장(문학정보과 교수)은 "정보마루는 모든 방향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열람공간과 아울러 대부분 좌석에 콘센트 및 개인조명을 비치해 친화적으로 구성했다"며 "각계 후원금과 재정사업비로 완공된 도서관이 학생들 이용은 물론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역민과 동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체능 자료가 소장된 'Creative Park'.



첨단 IT와 자연, 학술, 문화가 조화를 이룬 전남대 디지털 도서관 '정보마루'.

'제9회 스토리 공모전' 5월까지 접수...대상 5000만원 상금

교보문고(대표 안병현)가 제9회 스토리공모전을 연다.

스튜디오 S, 쇼박스 등 공동 주최하는 공모전은 창의적 이야기를 가진 작가와 영화·드라마·웹툰 등 '웹소설'이 가능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장르와 내용도 제한이 없다. 응모 분야는 중·장편소설, 단편소설, 동화 부문이

며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원고를 보낼 때 신청서에 주제, 기획 의도, 등장인물, 줄거리 등을 써야 하며 교보문고 스토리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상금 8600만 원이며 대상 상금 50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중·장편 대상 1명 5000만 원, 중·장편 우수상 4명에 각 500만 원, 동화 부문 우수상 2명에 각 300만

원, 단편 부문 우수상 5명에 각 2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은 종이책 및 전자책 출간과 함께 다양한 2차 콘텐츠로의 가공도 지원한다. 수상작은 9월 중 발표한다.

지금까지 수상작 중 '조선헌담공작소: 꽃파당', '루악인간' 등은 드라마로 제작됐고 외국으로도 수출됐다. 올해 7월에는 제3회 대상작인 '마녀식당'으로 오세영*가 드라마로 방송될 예정이다.

문의 02-2076-05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례식'

도자 인형으로 만나는 조선 500년

오주현 초청전, 16일~5월25일 광주신세계갤러리

'도자인형으로 만나는 화려한 궁중 행렬.'

조선시대 생활상 등 우리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1250°C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아름다운 도자인형을 통해 조선시대 복식 등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5월25일까지 오주현 작가 초청 도자 인형전을 갖는다. '조선 500년의 색을 빛다'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대례식', '궁중 아악' 등 조선 시대 궁궐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들과 궁궐 밖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돼 당대의 생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오주현의 도자 인형은 조형, 색고, 채색 등의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작가는 소지(壽)와 안료, 재료 등의 혼합 기술과 독노하우를 적용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오방색을 비롯한 다양한 색상을 선명하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해 내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도자 인형과는 달리 물드를 사용하지 않고 작가가 직접 조형해 작품을 완성하는 터라 모든 작품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인형이다.

전시는 크게 '궁'과 '그 삶'이라는 두 주제로 구성됐다. '궁' 파트에서는 대례식, 궁중아악 등과 같이 궁궐 안에서 이루어졌던 행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왕과 왕비의 위엄 있는 자태와 황후의 황원삼, 왕가의 여인들, 문관과 무관, 궁녀와 내시 등 30여 점의 도자 인형으로 조선 궁중의 산책 장면을 구성했다.

작품 '궁중 아악'은 전시에서 처음 공개하는 작품으로 20여 점의 악기와 연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악기와 연주자의 모습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마치 음악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전하는 작품이다.

'그 삶' 파트에는 궁궐 밖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인형이 전시돼 있다. 선비, 어머니, 어린 아이 등 다양한 인물로 구성된 이 파트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특히, 조선 시대 여성을 표현한 도자인형 연작은, 고단한 삶을 극복해야 했던 지난 날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게 한다.

갤러리 벽면에 설치된 200여 점의 도자 저고리는 한복의 색과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다. 오방색과 전통문양을 바탕으로 작가가 새롭게 디자인한 한복 저고리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 어머니'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